

#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본격화

### 시 이달말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마무리 다음달 초 국토부에 타당성 평가 제출...6월 착공

광주시가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 이달 말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 초 국토교통부에 실행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3월 국토부 승인을 받아 6월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단위사업별 설계와 보상, 공사 착공 등에 나설 방침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광주역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은 호남고속철도 노선 폐지 이후 이용객과 유동인구가 급감하고 지역 상권이 침체한 광주역 일원을 되살리기 위해 창업 및 기업성장지원 시설 건립, 창업자의 주거지원, 녹지 및 환경개선, 주거·상업·유통

·업무 등 지역 거점시설로 육성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 250억원과 시비 250억원을 포함, 오는 2024년까지 모두 1조1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마중물)과 지역에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부처 협업사업, 광주시와 철도공사가 철도차량 이전부지에 추진하는 복합개발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지식서비스 산업의 거점공간 ‘스테이션G’ 건립, 광주역 광장을 활용한 ‘문화광장’ 조성, 광주역사와 푸른길공원 사이 철도유류 부지를 활용한 ‘푸른이음공원’ 조성사업 등을 마중

물 사업으로 추진한다.

각 부처가 지원하는 14개의 부처협업사업은 다양한 문화콘텐츠 상영과 시연 행사 등 퍼포먼스가 이뤄지는 미디어아트 공간과 첨단 AR/V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AR/VR산업생태계 조성, 도시철도2호선 계획 등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다.

또 철도차량기지 이전 부지는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상업·유통·쇼핑은 물론 주거·업무·관광 등 종합적 기능을 하는 중심지역으로 조성한다.

시는 이들 사업 시행으로 청년들의 창의적 활동 공간과 다양한 문화행사 등 개최로 주변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지역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물론 교통환경 변화를 계기로 신산업 경제 거점이자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공모 선정 이후 스테이션G와 푸른이음공원 조성 등을 위한 철도 유류부지 활용, 역사복합개발 추진 등 사업 전반의 업무협조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사용부지 범위, 미사용 철로 조정,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개발구상 용역 추진 등 구체적인 내용 등을 협의해왔다.

또 광주역 뉴딜사업의 핵심사업인 가정스테이션G를 건립하기 위해 광주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스테이션G’ 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획위원회에서는 스테이션G의 공간배치계획, 입주기업, 운영방안, 일자리 창출, 수익구조 등의 실행가능성을 높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수영대회 성공 기원 콘서트 연다

### 25일 문화전당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5일 오후 7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수영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는 수영대회 분위기를 끌어 올리고 참여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콘서트에는 솔리드 전 멤버인 김조한을 비롯해 버클리음대 출신 피아니스트 신지호, 3인조 걸밴드 ‘406호 프

로젝트’, K-POP 가수 ‘W24’ 등 6개 공연팀이 2시간 동안 공연을 펼친다.

조직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이 현장에서 수영대회를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편 조직위는 이번 콘서트를 시작으로 ‘D-100일 한류뮤직 페스티벌’을 비롯해 K-POP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전야제, 대회 기간 경기장과 선수촌 등 곳곳에서 전통예술 공연, 로컬푸드 시연, 댄스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어등산 관광단지 협상 난항

### 광주도시공사-호반 컨소시엄 레지던스 호텔 이전 못쫓혀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인 호반 컨소시엄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한을 정해 급하게 협상을 진행하기보다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2차례 연기에 이달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다.

20일 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호반 컨소시엄과 지난 14일 제9차 실무협상이 끝난 뒤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공사가 요구한 레지던스 호텔의 전문업체 위탁 운영 또는 직접 운영, 관광단지의 의미에 맞도록 콘도 및 특급호텔 추가 공급, 공익성 제고 방안 등에 있어서 이전

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호반 컨소시엄 측은 1500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을 일반 분양하겠다는 입장이며, 수익 제고를 위해서는 콘도나 호텔이 추가 공급은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는 레지던스 호텔이 숙박업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전문업체가 위탁관리하거나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레지던스 호텔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 개념의 주거시설이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번 주내 최종안에 대해 전문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으려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도시공사는 최종안이 자문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을 자문,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이달 내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강진서 ‘살충제 성분’ 계란 64만개 폐기처분

강진의 한 산란계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지난해 5월 나주시 발생 이후 8개월만이다. 전남도는 해당 농가가 생산한 계란의 긴급 회수·폐기에 나섰다. 소비자들은 잊을만하면 터지는 ‘살충제 계란’ 사태에 불안해하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강진군 도암면 한 산란계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카타프’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산지인 유번호(난각코드)는 ‘TAJ164’다.

‘카타프’는 나방·진딧물 등 해충 방제용으로 농작물에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이다. 기준치는 0.01mg/kg이며, 이 농장에서는 4배가 많은 0.04mg/kg이 검출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장 인근 텃밭에서 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했는데, 이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해당 농가는 해명했다”고 전했다.

해당 농가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장으로 산란계 8만마리를 사육, 하루 평균 3만5000여개의 계란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해당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의 출하를 즉각 중지시켰다. 또 지난 45일 간 출하된 계란 160만개의 긴급 회수에 나서 농장에 보관 중이거나 판매처에서 보관 중이던 64만6000개를 수거·폐기했다. 이미 시중에 유통된 96만개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 차단에 나섰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여성안심택배보관함

### 광주시, 확대 설치키로

광주시에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1인 가구의 택배 서비스 이용 증가로 택배 기사를 사칭한 각종 범죄에 여성과 아동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추가 설치 지역은 자치구별로 원동, 다세대 주택 등 1인 가구의 거주가 많은 1곳씩 총 5곳이다.

현재 광주에는 서구 2곳, 남구 1곳, 광산구 2곳 등 총 5곳의 안심택배보관함이 운영 중이다.

이용자는 물품을 신청할 때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주소로 배송지로 지정하고 배달이 완료된 후에는 택배함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물품을 수령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BS, 학습교재 1만2128부 기탁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지난18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전해달라며 1억2천만원 상당의 EBS 초·중·고 학습교재 1만2128부를 북구에 기탁했다. 이날 광주 북구 우산북지관에서 직원들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교재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 “광주형일자리 새 노사관계 만드는 계기 될 것”

###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임금·단체협상 유예 조항 타협해야”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는 박병규 사회연대일자리특별보좌관을 임명하는 등 협상팀을 재정비하고 현대자동차와 지역노동계와 본격적인 재협상에 나섰다. 이르면 설 연휴 이전에 협상 타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

회(경사노위)의 문성현(사진) 위원장은 지난 18일 광주를 찾아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공직자 혁신교육에서 “격차 해소와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새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금

격차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국가가 망하는 것이다”며 “사회의 공동체를 생각하면 임금 격차를 줄이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광주형 일자리가 새로운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에 대한 고민을 중심에 놓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 문제가 아닌 나라 전체의 문제를 광주가 안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이룰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이다”면서 “우리 자동차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광주형 일자리를 꼭 짚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노사 이해관계가 아닌 모두가 대한민국 경제와 노동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광주형 일자리의 마지막 쟁점인 ‘임금·단체협상 유예’ 조항에 대해서도 타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림형 태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